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주제 제 25561호】 주제 106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양어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역
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
진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스러운 기적이 편
이어 창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삼천메기공장이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창조물로
희한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양어의 주제화, 과학화, 집
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
에서 실현됨으로써 세계적 수
준의 대규모 양어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서홍찬
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꽃피우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사업이
라고 하시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물어쥐고 그 판
월을 위한 길에 한몸을 아
낌없이 바치려는 비상한 각
오와 책임감을 갖고 살며
투쟁함으로써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꽂아워
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
종실, 종어호동, 알개우
기호동, 비육호동, 팽화
시료공장, 팽동저작고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
시면서 생산 및 현대화
정형을 구체적으로 교해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
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었다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
였다.

2015년 12월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냄원이 깃들어있
는 공장을 세계적 수준의 메기생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파업을 제시하시고 강력
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보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들을 직접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

건설자들은 당의 뿌리를라면 물줄을 가리
지 않고 뛰어들어 기어이 판철하고 암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투쟁본래를 낭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연간 축면적이 9만여 m²에 달
하는 삼천메기공장의 방대한 현대화공사
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천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
전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전지개벽되셨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도시에 들어앉아도
손색 없을 멋쟁이 공장이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규모나 생산공정의 현대화
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어부문을 대표
하는 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이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시었던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이 공장은
우리 장군님께서 메기양어개척의 첫삽을

박으신 뜻 깊은 곳이라고, 장군님의
직접적인 말기에 의하여 일떠서고
세상 한 평도의 손길 아래 걸어온 삼천
메기공장의 발전로정 속에는 인민들 파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혼신과 뜨겁게 어리여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삼천메기공장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해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중
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그것은 장군님의 생전의 냄원을

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는 것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 화방침을 철저히
판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양어
를 발전시키자면 종업원들이 높은 과학
기술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 컴퓨터홈페이지를 개설
하여 종업원들이 각종 자료들도 열람하면
서 선진적인 메기양어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메기공장들 사이에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 나라의 메기양어
발전을 적극 추동할 수 있다고 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양어기 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자원계획화체계, 생산관리체계, 자동종제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모의할수 있게 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은 결과 실내 및 야외온도의 올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조정하고 매기들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급과 먹이량을 자동 조절할수 있게 되였다고, 지금까지 본 통합 생산체계들중에서 한계단 더 발전했다고 기뻐하시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를과 합심하여 만든 자동먹이공급기의 동작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잘 만들었다고,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1만여마리의 예기 가

옥실거리는 16개의 큰 예기못들을 2명의 종업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당에서 바라는 토력질약형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암께 우기호통에서 진행하는 알짜기모습과 수조마다에서 아글거리는 새끼예기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생산환경이 좋아 절대 맞게 생육조건보장을 과학적으로 잘해주어 사료률을 높이라고 하시였다.

못들마다에서 옥실거리고있는 팔뚝같은 예기들을 보시면서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것 같다고, 정말 흐뭇한 풍경이라고 기뻐하시였으며 행동장장고에 쌓여있는 행동예기를 보시고서는 만시름을 다 잊으신 듯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풀속에 잘 가파않지 않는것으로 하여 허실량이 적고 부폐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소화흡수률도 높은 평화미이생 산공장을 꾸려놓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물고기의 소비단위기준을 극히 낮출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을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광물질먹이첨가제, 종합아미노산, 정향복합균 등 여러가지 효능높은 먹이첨가제를 개발하였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이용하는 문화후생시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삼천예기 공장의 모든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을 잘 꾸렸다고,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대단히 잘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온천지마인것으로 하여 온수성을고기인 예기를 기르는데서 리상적 이며 더운물걱정이 전혀 없는 곳에 일떠선 삼천예기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 될으로써 연간 3,000여t의 예기를 생산할수 있게 된것은 대단한 성과 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예기공장이 예기양어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

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고기생산주기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먹이소비단위기준을 더욱 낮출데 대한 문제, 물고기들에게 생육조건을 잘 보장해줄여 면역력을 높일데 대한 문제, 물고기의 맛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둘릴데 대한 문제, 공장이 다른 단위들에 예기양어와 관련한 과학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치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예기공장을 돌아보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들을 하나하나 일떠세워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지난번에는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가게 되었고,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대규모의 삼천예기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로 일떠세워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원을 실현하고 장군님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지들에게 조선민족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예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정책판철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삼천예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멀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랄음을 결사판철에 잘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장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과 16일 어려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 씨 야 의 따 쓰 통 신 은 김정은동지께서 16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정일동지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15일 김정일평도자의 탄생 75돐경축 중앙보고회에 참석하시었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 24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스투트나크방송, 중국보도

망, 중앙TV방송, 일본의 지지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평생성실에 즐거워하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도이월란드란제연 단인히네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떠날거리 전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불세출의 대성인

온 행성에 굽이치는 위인 칭송의 열기

『천리애인의 선진지명과 비범한 사상과 훌륭한 행실에 대한 칭송』은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것으로

하여 만민의 칭송을 받는것이라고 적힌다.

이것이 어찌 그동안의 실정이라고 말 하겠는가.

만물에 빛과 열을 주는 태양과

같이 만사람을 한풀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 차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진보적인 인류의 강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우리의

리치는 국제사회의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가 온 행성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수많은 나라의

신문들이 장군님의 태양상과

평생사진들을 모시고 위인의

교활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대서특필

하였다.

이 말리아 총 학자 그룹 리사장

장기호를 엘리아 밀로리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 것 이

김정일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

실천의 기초이며 역사라는 것 이

다. 김정일각하의 좌우명은 인민

을 하늘같이 여기는 이민원천이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숨겨주며 자신을 그 아들로,

종북으로 간주하시는 분이시였다.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태양은 분명 김정일각하이시다.

태양은 분명 김정일각하이시다.

본증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쿠에타 메일리 인디언드』, 꽁고신문 『리 빠즈리오트』,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르자이버』도 『백두산과 김정일』 등 제3 목의 글들에서 항일의 나날 백두산에서 조선을 빛내어 świat 광명성, 시대의 항도성으로 치아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기기를 이어 걸어 빛날 거대한 풍采를 쌓아올리실때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도네시아 메디아』는 『김정일과 세계, 세계자주화사업의 기수』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자주화사업을 전두에서 이끄셨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전걸한 반제 투쟁의 산보법으로 지존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신문은 미국이 무장간첩선 『루에블로』호 사沉, 『EC-121』호 항간 철비행기 사沉, 판문점사전 등 끊임 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체를 격화시켰지만 그때마다 백두명장의 담력과 배짱앞에 굳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인민을 경탄시키며 온 행성에 급이치는 위인칭송의 열기는 블레슬의 대성인 이 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사회계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 로작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혁명생애』는 전 세계에 출판되는

【조선중앙통신】

영원한 혁명의 나팔수

3면에서 계속

오늘도 학창단에 슬인들이 심장에 소중히 앓고 사는 천원글같이 있다.

《공훈합창단 전체 동지들에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했던 혁명대의 영원한 동행자, 힘있는 나팔수가 되라!

살아숨쉬는 듯 한 활활한 월제미다에 끌어온 믿음과 기대가 승진처럼, 띡쳐처럼 느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원시한.

이 천원서한을 소중히 앓고 사는 공훈국 가학장단에 슬인들은 어제와 오늘도 그려온 듯이 쾌일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명도를 담드는 길에서 영원한 동행자, 힘있는 나팔수가 될 것이다.

3

혁명의 노래높이 걸어온 천만피의 또다시 가야 할 역할이 평화져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더불어 혁명의 최진성기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우리는 가슴벅찬 환희속에 가야 할 앞길을 바라본다.

그리면 승임의 울려온다.

가야 할 혁명의 앞길에 더 높이, 더욱 강엄히 헤어리쳐갈 신념의 노래가.

혁명의 비비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 리나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러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하고 정직적인 지도밑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경정일장제 관작품으로, 시대의

기념비적 결작으로 풍성히 창작형 상되어 천박심장을 적통에서 판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한 한길을 가리라!》

누구나 들으면 심원한 사색에 잠기게

하고 당을 따라 끌까지 가고 싶은 길을 더욱

가다듬게 하는 맹작중의 명작 《영원한 한길을 가리라!》는 공훈국가합창단 70

년사의 흥화작이기도 하고 영원히 울려갈 주제가이기도 하다.

한방울의 물은 우주가 비끼듯이 이 한

편의 노래와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걸

여온 길과 가야 할 길이 비껴온다.

어느 하루도 멀지지 않고 멜레비온과 소

리방울을 통하여 울려나오는 이 음악을 들

어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파연 무역을 생각하는가.

악기의 울림 그대로가 아니라 그 어떤 심

원한 사상의 공명판을 거쳐 심장에 와닿는

듯 한 절절하고 승엄한 선율은 그에 그려도 가

승을 해锱듯 과고하며 뜨거운 추억을 불며 일으키는것인가.

길!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고 오늘도 걸고 있으

며 베일도 걸어야 할 혁명의 한길!

파란 그 길은 어떤 길이었으며 어떻게 이

어진 길이었던가.

그 누가 걸어본적도 없는 전인미답의 길,

우리 자신이 스스로 떠하고 고난도 끝으로

살으며 대를 이어 걸어온 미나는 길을 오늘

우리는 이 한편의 명곡과 더불어 가슴뜨겁

게 되어버렸다.

험신이 막아서든, 강물이 막아서든 돌아

서거나 우회하지 않고 오직 당을 따라 앞으로

로만, 끝내로만 새겨온 혁명의 한길.

언제 한번 남들로 우리에게 떠나온 길을

뛰어준적이 있었던가, 우리앞에 대통령을 열

어준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걸어온 길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피땀으로 자축자축 생눈길을 헤치고

가시밭을 헤치며 개척하고 끊고온 길이었다.

그 길은 만난앞에서도 굽함없이 혁명에

다진 대세를 지켜온 신념의 길이었고 수령

의 믿음을 복종처럼 지켜온 의례의 길이었

으며 계획으로 일어서고 부강해진 자력자강

의 길이었다.

그 길은 정녕 모친 고난을 웃음으로 이겨

은 막판의 길이었고 걸쳐드는 시련을 혁명

의 노래로 이겨온 항만의 길이었다.

풀없이 다가서는 쟁쟁춘명을 헤쳐넘으면

서도 우리 언제 한번 주저앉거나 비판한 적

있었던가.

험신준봉을 넘을지 엄청 남들이 가는 순간

한 길을 걸어걸하며 끊없이 한숨을 내쉰 적

은 없었다.

비록 허리띠를 조일지언정 신념과 땅만의

노래를 험준하게 없었다.

혁명의 노래, 두정의 노래와 함께 헤쳐온

준엄한 나날들을 헤어 헤쳐온 우리 가슴

세계에 놓여고 있다.

우리 혁명체험 노래와 밀접되고 노래로 역

어지는 혁명, 음악이 중시되고 무정의 전두

에 험하게 헤쳐온 혁명이 또 어딨으랴.

혁명 그 자체가 하나의 대교향곡이 되고 있

는 조선혁명은 곧 종류의 노래이다.

혁명의 노래와 함께 걸어온 길도 멀고 험

난해지만 가야 할 길 또한 아득하다.

영원한 한길을 가리파!

이 한마디에 우리 당을 따라 굽함없이, 신

심드높이 혁명의 한길을 같이 나와 천민군

의 결사의 각오와 뜻을 고여지고 있다.

시련이 많아도 좋고 풍족치 못해도 좋다.

당과 함께라면, 원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는 그 모든 만난시련을 말해 이겨내며 영원히 한길만을 갈것이라는 철성의 신념,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강정인 동시에 영원한 혁명의 나팔수 공훈국가합창단 성원들의 실정의 토로이기도 하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파!

이것은 결코 학창단가수들의 성대에서 울

려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실정과 가장 잘

온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선서이다.

바로 투철한 이 신념으로 하여 선군혁명

의 나팔수, 최고사령부나 팔수를 영원히

나팔수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응위하는 한족의

붉은기가 되어 혁사의 광풍을 맞았거나가던

불굴의 그 정신, 《직기기》의 구절구절을

실정으로 부르며 우리 장군님단을 따랐던

신념의 펴줄기는 이 신념으로 하여 최후승리의 축포성을 듣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응위하는 한족의

가슴속에 널리 퍼져나온다.

혁명군가의 영원한 선상곡이고 주제가인

수령길사용의 찬가는 오늘도 높이 울리고

있다.

노래와 함께 시작되고 노래와 함께 전진

해온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승리한다는

불굴의 정리를 새겨주며 더 높이 울려퍼지

는 신념의 나팔소리.

영원한 혁명의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

은 앞으로도 당파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전군과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리며 백두산대국의

가슴속에 널리 퍼져나온다.

우리는 이 뛰어난 나팔소리로 제국주의자

들의 온갖 재제와 불의의 사슬을 깨며 풀어

놓고 헤쳐온 혁명의 전진을 풀어놓고

우리 혁명군가가 세계에 새롭게 펼쳐나온다.

이 나팔소리로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온갖 대세와 버팀목이 되어온다.

우리 혁명군가가 세계에 펼쳐나온다.

시초 강국의 려명이 불탄다

승리에로 4월에로!

최광일

시간도 승리도 우리의 것!

백두의 봄장이
거룩한 손길들이 가리킨
이 땅의 4월
북부전선에서 승리를 떨친 용사들
또다시 허망전역을 타고 애아
승리에로 폭풍진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시간에 맞추어
철마전선을 벌려온
청의 사단들
청년들, 척수들을
그 강령군의 불꽃기가
경쟁도표우에서 치달고 있다
4월에로!

북부전선에서 기적을 암아올린
사회주의 우호천
인민북부전의 불길이
70중, 55층
초고층들을 향하고 활활 타번졌다
전설의 새 신화로 나래쳐오른다
4월에로!

절전장을 달려온 철사
더 큰 용맹 힘치는 법
전투에서 전투에
열번, 배번
더 크게
더 본때 있게 이기리라

발판을 막고 하늘가에 오르는
빨간 명장 저 명사도
북부전장에서 승전고를 울린
화선의 로병

분명 국진설대전의 한복판
시대의 하늘가에 기적의 나래를
쳤겠다

모래
세멘트
타일…
만점하고 떠나는 대형차바퀴에
불꽃이 펑긴다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건설신화가 데여난다

인민의 행복을 떠나고
이 거리 더 높이 솟을수록
원주민들 처박힐
멸망의 함정들은 더 깊어지리
우리의 존엄은 하늘에 달으리라

도, 4월에로 왕한
최후돌격전에 승리자들이 나섰다
임상단계의 물가항력적립을
온 세상에 펼치며
분명 강국의 대분율 열어젖힌다

사랑의 불빛이 흐른다

주광일

외무자락에 스며들어도

그의 가슴속엔

4월의 홍향이 뜨겁게 일어난겼어라

그 자유지구우에
기적의 열풍은 라면져
분명의 빛깔 휘감으며
강국의 휘황한 새 거리가

4월의 물을 마중가져
이제 준공의 날이 오면
아버지의 그 손길로
새집들이 첫물도 얼어주시리

창가마다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이 강산에 풀려가고
인민의 러친은 끝 눈부시리라

수령님들 제일 가까이에
인민이 사는 이 거리
태양의 성지와 한프락을 이루었나니
아, 려명거리여

정월의 친마란은

내 나라의 아침이 시작되는

금수간기슭

억만 가닥 혼사를 빠지았고

푸른 하늘에 흥홍경을 펼치며

솟아오르는 려명거리여

금수간기슭에

인민의 새 거리가 솟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지으시는

우리 수령님들의 미소

서 밝은 창문들에 해빛으로 흐르는가

그리워와 그리워

새집들이 물들처럼 만발할

태양빛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인민의 행복을 계일 큰 농으로 여기시면

어버이 차애로운 그 영상

사무자는 그의 웃을 암고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정월의 친마란은

광명성 절경 축재일본조선인축하단

여러곳 참관

리기서 총련중앙성립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질

경주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유

경안파종합병원을 참관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다기능적이

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자로

훌륭히 일미선 명원의 어여곳
용 돌아보면서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며 이 세 상 막 육을
축하단은 또한 정천현명사적
경안파종합병원을 참관하였다.

최고평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최고평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원, 뮤경김치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한없이 위대하고 운해로운

사람에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제12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이룩된 성과를 놓고

